

## 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대학은 수빅 베이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올롱가포 시티와는 택시를 타고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와 대학 규모는 매우 크고 시설도 깔끔했으며 빨래 또한 매우 청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수영장이 기숙사 바로 앞에 있어 사람들과 방과후에 즐기기에 매우 적합했으며 학교 시설의 색과 하늘의 색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고 밤에 별도 매우 잘 보이고 이쁩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4번의 1대 1 수업과 4번의 그룹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룹 수업에서는 2번의 토익 스피킹 수업을 하고 한 번은 영어로 비디오를 제작하고 또 다른 한번은 수업내용을 토대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1대 1 수업은 읽기와 단어로 구성되어있고 책을 위주로 수업합니다. 선생님들은 매우 좋으셨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수업 시간이 다 가있을 정도로 매우 흥미 있습니다. 수업 때 레벨테스트를 토대로 책이 배정되기는 하지만 쉬울 수도 있으니 더 높은 레벨을 선택해 자신의 영어 기술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p> <p>1. 올롱가포 시티 투어: 처음으로 도착하자마자 사람들과 조를 편성해 필리핀 선생님과 함께 수빅투어를 하며 필요한 물품을 삽니다.</p> <p>2. yachting: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합니다. 다이빙도 하고 매</p>

	<p>우 색다른 경험이라 생각해서 꼭 한 번 수영복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p> <p>3. Mt. Samat: 산을 타면서 예전에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p> <p>4. 워터파크: 제가 제일 즐겼던 액티비티였습니다. 수영복이 꼭 필요하고 추가비용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슬라이딩도 너무 재미있고 바다 옆에 워터파크가 위치해 있어 바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워터 트램폴린이 있어서 그 위에서 뛰면서 놀 수 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매우 덥습니다. 저녁엔 매우 추워서 긴팔과 반팔 모두 챙겨가는게 좋습니다. 하늘도 매우 맑고 좋습니다. 비는 내려도 조금 밖에 안 내렸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매우 안전했고 사람들도 다 착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p>
숙소	<p>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p> <p>처음에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만 다 박멸하고 나니 괜찮았습니다.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평일 10시와 주말 12시 점호인데 조금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밤을 제대로 못 즐긴 것 같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v) 외부식당 ( ) 기타 (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먹을 만 했습니다. 식비를 아끼고 다른 체험을 더 하고자 돈을 아끼는 방법으로 학교 식당을 이용했습니다.</p>
교통	<p> 시내교통 관련</p> <p>택시비는 비싸지 않지만 사람들이랑 다같이 fb를 타는 것이 저렴합니다. 시내 교통도 트라이시클타면 저렴하고 지프니는 무서워서 못탔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600000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200000	
유흥	200000	
쇼핑	200000	
합계	6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맛있는 음식점이 많으니 다녀온 선배한테 추천 받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많이 챙겨갔었는데 많이 챙겨갈 필요 없고 수빅에도 이쁜 옷 파는 가게가 많으니 거기서 구매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는 다 친해지고 좋은 추억을 쌓으니 혼자 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는 가족같고 아쉬워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정도라 딱히 걱정은 없었지만 조금은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들으셔서 걱정은 없지만 자신의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낯을 가리고 친해지는 데도 힘들 수 있지만, 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

고 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토익 스피킹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어 3월달 안으로 토익스피킹 시험을 한 번 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레벨테스트 정도만 나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랑 나눈 대화가 그립고 같이 사람들이랑 지냈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공부에 치중되기 보다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많이 해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p>T. grace와 funfriday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p>	<p>길가에서 닭 내장과 닭 머리 돼지 뒷목을 굽는 사진입니다.</p>
	
<p>t. grace와 한경대 학생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간 사진입니다</p>	<p>t. jean, t. nikka, t.may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간 사진입니다.</p>
	
<p>졸업식날 아빠와 같았던 제리쌤과 울면서 헤어지는 사진입니다</p>	<p>호그와트 카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파스타 맛있어요</p>